

가 銅鉞와 劍把頭飾이었다. 이 銅製物은 今年 錦南國民學校에서 校庭整理에 쓰려고 學校附近의 標高二、三十米 程度의 禿山頂部에서 採石을 하고 있던 中 發見된 것이라 고 하며 「호미로 地上的 雜石을 잡고 있는데 나왔다」고 할 뿐 아무런 遺構나 伴出物은 없었다 한다. 正確한 地名은 靈岩郡 始終面 新燕里이며 여기는 羅州郡 潘南面所在地에서 西쪽으로 約二浬이고 거기서 그대로 西行하면 榮山江口인 南海灣까지가 亦是二浬쯤 된다.

二 銅鉞는 全身 潤澤 있는 綠鏽로 덮혔고 刃部에 全長二三浬、鑿部의 外徑二浬弱 鑿部下端에 二條의 突帶가 돌러지고 一面에 木柄을 固着시키기 위한 一孔이 뚫려 있다. 銅鉞로서 普通 있는 形式이며 特別 注目할 點은 없다.

銅裝劍把頭飾은 保存狀態가 매우 좋으며 亦是 潤澤 있는 綠鏽에 덮혀 있고 總高三·五浬 橫五·五浬 半截齒形基部에 頂部가 十字形인 장식을 세운 것이며 이것이 銅劍의 把頭에 附着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는 데 劍身과 遊離되어 單獨發見되는 例가 있다.

三

靈岩郡에서는 傳靈岩附近出土라는 細文鏡破片이 過去에 報告되었는데 ① 昨年엔가 亦是 靈岩 出土라는 砂岩製鑄范 各種(銅劍, 鈞針等)이 市場에 나와 基督教博物館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 先史時代末期의 靈岩地方

의 重要性이 다시금 느껴지는 바이다. 過去에는 이러한 青銅器는 北에서는 平壤地方, 南에서는 大邱—慶州地方이 中心地라고 알려져 있고 있는데 濟州島 山地港에서의 一括遺物이나 小鹿島發見의 細文鏡, 또는 傳木浦附近出土 銅劍②等과 注意를 끄는 바이다.

註 ① 梅原末治 報文、人類學雜誌 五八卷九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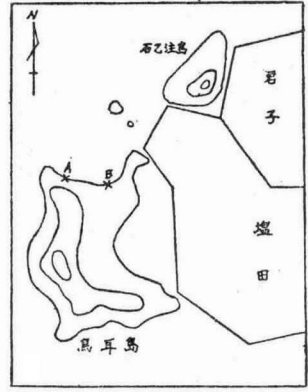
② 梅原末治 報文 史林 八卷一〇號—九卷 四號 (附記) 이번 發見된 遺物은 同地 錦南國民學校에서 保管中이다.

烏耳島 貝塚

尹 武 炳



烏耳島는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海岸에 鹽田으로 되어 있으므로 徒步로 건너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水仁線 君子驛에서 下車하면 約三十分으로 現場에 到着할 수 있는 近距離이다. 五萬分之一 地圖를 본다면 이 烏耳島 바로 東北方에 가까이 位置한 작으마한 섬 옆에 玉貴島라고 標記하고 있으나 이 烏耳, 玉貴는 같은 吾叱耳島(우키섬)을 말하는 것이다. 輿地勝覽이나 安山邑誌에는 그 작으마한 섬을 石乙注島(돌출섬)으로 記錄하고 있다. 筆者가 이 烏耳島 貝塚를 發見한 것은 一九四九年 十月의 일이었다. 當時 三韓 古地名의 現地比定에 興味를 느끼고 있던 筆者는 馬韓 五十餘國中의 하나인 石索國과 上記 石乙注島의 地名하고 사이에 어떤 關係가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實地 踏査한 結果 그 곳에서 別신동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 이웃에 位置한 烏耳島에서 貝塚를 發見하게



되었던 것이다.

遺蹟은 北쪽 海岸의 남떨어지 위치에 있고 있었으나 두군데서 그 존재를 確認할 수 있었다(略圖參照). 그 중 A地點은 約十五米 높이의 斷崖 위에 흰 斷面을 露出시키고 있었으며, 主로 甌(牡蠣) 정갈로 形成된 純貝層의 厚는 三〇cm에서 九〇cm에 이르는 두꺼운 層을 이루고 있었다.

루고 있었다. 이 貝層 下底部에서 所謂 빗살 櫛文 土器, 系統에 屬하는 破片 네個를 採集하였으나 그 중 한個에는 補修孔으로 생각되는 구멍이 한군데 뚫어져 있었다. 그들 文樣은 傾斜한 짧은 直線을 옆으로 連續하여서 構成한 線列을 上下 몇段에 걸쳐 配列하였으나 매우 銳利한 器具를 使用해서 施文하고 있었다 이러한 文樣은 서울 近郊의 岩寺里에서 多量으로 出土한 같은 系統의 土器 破片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器型이 작은 닳인지 文樣 全體의 構成이 보다 纖弱하게 되어 있었다. 器壁의 두께도 훨씬 얇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色調는 黃褐色에 가깝고 胎質도 岩寺里것 하고는 많이 差異가 난다. B地點에서는 破片 數個를 掘出하였으나 그 중 두個는 無文이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線列의 方向을 서로 反對적으로 바꾼 금은 빗살文이 있었다. 이 곳에서는 貝層의 厚는 約二〇cm 前後로 쌓여있었고 그 上部에는 黑色壤土가 五〇—六〇cm의 두께로 덮이고 있었다. 앞서 A地點에서는 地表까지 約五〇cm의 黑色壤土사이에 一〇—二〇cm 厚의 또하나의 貝殼層이 있었으나 그 部分에서는 遺物이 發見되지 않았다.

이 貝塚에 對하여서는 그 후 다시 調査할 機會를 갖지 못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면 그 후 德積群島의 蘇爺島와 昇鳳島에서 發見된 貝塚 出土의 土器와 제일 그 性質이 가깝지 않을까 한다. 京畿海岸에서는 그 以外에도 江華 앞바다의 筋島 貝塚이 有名하지만 烏耳島 遺蹟은 德積群島에서 發見된 貝塚에 더 가까운 親緣關係가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畫帖『善可法』

全 鑿 礪

十月六、七兩日에 걸쳐 東亞日報에 실린 金元龍先生의 檀園筆『龍珠寺父母恩重經』의 趣味津津한 一文을 읽고 문득 이와 類似한 古畫帖 一冊을 數十年前에 入手한 記憶이 나서 庫裏를 뒤졌더니 多幸히 戰禍를 免한 금지한 옛 裝幀 그대로의 畫帖 한卷이 먼지 속에서 나왔다.

題하여曰『善可法』이라 하였고, 冊앞뒤에는 墨痕淋漓하게 達筆로 아래와 같은 序文이 쓰여져 있다.

御製 善可法序

自古教養必自幼時目覩耳聽者必也正道令繪士梁箕星圖繪二十編十編孝子事親五編友愛敦睦三編勸學一編敬師一編古太子知稼穡其命圖之意深也。夫二十編皆以手書其題其下以諺書懸註蓋便乎閱覽也

崑歲丁巳二月上旬前書

- | | | |
|------|------|------|
| 殿門問寢 | 三時視膳 | 仲由運米 |
| 菜子娛親 | 陸郎懷橘 | 石建滌禪 |
| 黃香扇枕 | 王祥得雀 | 王延得魚 |
| 董生孝親 | 孝親友愛 | 書忍百字 |
| 妯娌和睦 | 兄弟友愛 | 投梨共食 |
| 螢囊讀者 | 穴窓照炬 | 畫地成子 |
| 程門侍立 | 世子觀稼 | |

이 序文에 依하면 『善可法』 畫帖은 英祖大王① 自身の 編著로서 特히 少年의 教育을 爲하여 그림을 除外한 글씨는 全部 自筆로 쓰고 當時 畫員이 있던 梁箕星에게 命하여 孝道, 友愛, 敦睦, 勸學, 敬師, 古太子知稼穡等 옛적부터 傳해오고 또 世上에 널리 알려진 故事를 추려서 그림을 그리게 하였으며, 그림 위에는 各各 題目을 쓰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說